

“국악과 힙합, 코드 다를 뿐 세상 향한 같은 외침”

컬처 & 피플

목포출신 소리꾼 박애리·비보이 팝핀현준 부부

목포가 낳은 소리꾼 박애리(37·사진 왼쪽) 명창은 ‘국악계의 이효리’로 불릴 만큼 미모와 실력이 빼어나다. 9살때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목포시립국악원을 드나들며 국악과 인연을 맺은 후 30여년을 한결같이 우리소리만을 노래해 왔다.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창극 ‘청’, ‘산불’, ‘로미오와 줄리엣’ 등에서 주연배우로 활약한 국악계의 젊은 간판스타인 그녀는 2010년 한국방송대상 국악인상과 한민족문화예술대상 국악부문 젊은 작가상 등을 수상하고 지난해 KBS국악대상에서 역대 최연소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1년 한국 최고의 춤꾼 팝핀현준(35)과 결혼하며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박애리 명창을 최근 만나고 온 기자는 그녀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의 소리인 국악을 소개하는 책부러지는 말솜씨 속에서도 남편의 힙합 춤을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국악인으로서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돋보였다.

효과가 배가 됐다. 마니아층을 벗어나지 못했던 국악과 힙합이라는 예술의 대중화에 성공시킨 것이다.

TV예능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이 그 시작이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팝핀댄서 팝핀현준이 박애리 명창의 춤에 맞춰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콜라보레이션 공연은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하기에 충분했다. 각각의 공연에서 보여줬던 감동 이상의 무대를 보여주며,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공연장에 가서 직접 보지 않으면 우리의 공연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TV프로그램을 보고 놀라워했던 분들이 많았죠. 저희 부부는 드레스 코드가 다를 뿐이지,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는 같아요. 국악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 것처럼, 힙합은 미국 전통문화의 한 장르입니다. ‘세상에 대한 외침’이라는 점에서 힙합이나 판소리 문화는 같은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팝핀현준)

서로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만큼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이 커플은 서로에게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갖고 있었다.

“현준씨는 저를 통해 또 다른 재미를 느끼고, 저 역시 현준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절대 경험해보지 못했을 대중적인 활동도 해볼 수 있어서 그만큼 우리 두 사람의 영역에 대한 교집합이 넓어진 것 같아요.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하되 두 분야를 넘나드는 작업들을 하면서 그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박애리)

박애리-팝핀현준은 광주에서도 공연을 선보인 적이 있다. 지난 2012년 광주세계아리랑축전 주제공연인 ‘빛고를 아리랑’에서다. 이들은 아직도 그때의 공연을 잊지 못한다고 전했다.

“‘빛고를 아리랑’이라는 5·18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대단한 공연이었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리랑 여인’이었고, 현준씨는 지금의 이야기를 후대에 알려주는 미래에서 온 청년이었어요. 저는 목포가 고향이라 광주의 아픔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현준씨는 이 작품을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많은 걸 공부하고, 자신이 알게된 부분을 주위에도 알려주는, 작품의 성격과 잘 맞았어요.”

앞으로도 힙합과 국악을 조화한 공연을 많이 보여 주고 싶다는 이들은 우선 5월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콘서트를 준비중이다. 또 9월에는 LA문화원에서 진행되는 ‘아리랑’ 공연에 참여해 교민들에게 고국의 노래를 선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박애리씨는 광주와 목포, 진도 등을 오가며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공연도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창에 맞춘 팝핀댄스 시선 압도

TV ‘불후의 명곡’ 콜라보 큰 화제

국악+힙합 신 문화 개척 ‘시너지’

5월엔 부부 이야기 담은 콘서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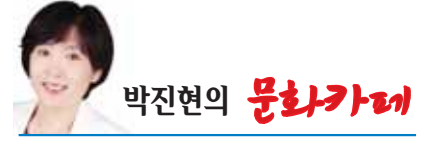
TV에서 보아왔던 이미지 그대로 깔끔하게 빗어올린 헤어스타일의 박 명창의 옆에는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인생 동반자인 팝핀현준이 함께였다.

팝핀현준은 국내 힙합계의 독보적인 존재다.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춤의 세계에 빠진 그는 자신만의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 이주노를 만나 댄스가수로 데뷔하기도 하고, 서울예술전문학교에서 비보이학과 교수로도 활동했다.

8개의 관절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팝핀댄스의 전문가로, UK B-Boy 챔피언십 등 세계 유수의 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고 뮤지컬과 드라마, CF에서도 활약했다. 현재는 팝핀현준 아트컴퍼니 대표를 맡으며 힙합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사실 이들의 결혼은 당시 문화계에 큰 이슈가 됐다. 각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며 승승장구하던 이들이었지만 이들의 조합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한복을 입은 국악인과 힙합 청년의 만남은 이들을 아는 누구라도 걱정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주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두 예술가의 결합은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가며 오히려 시너지



박진현의 문화카레

지난해 3월 일본 21세기 가나자와 미술관을 찾은 기자는 가슴 뭉클한 경험을 했다. 앤디 워홀, 제임스 터렐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어서였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내로라하는 아티스트들 속에서 범상치 않은 존재감을 보여준 한국작가 서도호(53) 때문이었다. 가나자와 미술관에서 만난 서도호 특별전은 반가움을 넘어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집 속의 집’을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는 그의 설치작품들을 보려는 관람객들

래의 최대 히트작 가운데 하나다. 1.2톤 규모의 붕고차량에 1인 객실을 꾸민 이 작품은 전시장의 불박이가 아니라 광주 전역을 돌아다니는 이동식 호텔이라는 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실제로 외지에서 온 비엔날레 관람객은 틈새호텔로 광주 전역을 돌아다니다 집과 집 사이, 건물과 건물사이의 이름 없는 틈새에서 숙박하며 광주와 소통하는 체험을 했다. 당시 비엔날레 재단은 행사가 끝난 후 틈새호텔을 광주의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틈새호텔’은 달려야한다

로 북적거렸다. 반투명 천으로 여러 가지 집을 재현한 대형 설치작품과 영상, 드로잉은 ‘집짓는 미술가’의 명성을 실감케 했다. 3개월 동안 열린 특별전에는 5만 여 명이 가까운 관람객들이 다녀갔다. 가나자와시 인구가 47만 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박’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서도호 전시회가 반가웠던 건 그의 2012 광주비엔날레(9월7일~11월11일) 출품작 ‘틈새호텔’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다. 비록 실물이 아닌 영상이었지만 4개월 전 막을 내린 광주비엔날레의 현장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 즐거웠다. 특히 틈새호텔의 24시를 카메라에 담은 영상은 가나자와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일부 관람객은 “한국에 가면 꼭 한번 틈새호텔에 머물며 광주를 느끼고 싶다”고 했다.

틈새호텔은 2012 광주비엔날레의 최대 히트작 가운데 하나다. 1.2톤 규모의 붕고차량에 1인 객실을 꾸민 이 작품은 전시장의 불박이가 아니라 광주 전역을 돌아다니는 이동식 호텔이라는 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실제로 외지에서 온 비엔날레 관람객은 틈새호텔로 광주 전역을 돌아다니다 집과 집 사이, 건물과 건물사이의 이름 없는 틈새에서 숙박하며 광주와 소통하는 체험을 했다. 당시 비엔날레 재단은 행사가 끝난 후 틈새호텔을 광주의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지금쯤이면 광주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아야 할 틈새호텔이 1년 넘게 시동이 꺼진 채 방치돼 있다(본보 4월2일자). 운영주체인 비엔날레재단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게 주된 이유다.

사실 어디 틈새호텔 뿐이던가. 광주시 문화행정의 ‘참을 수 없는 가뭄’을 엿볼 수 있는 곳은 의외로 많다. 5회째를 맞은 아트페어 ‘아트 광주’도 그렇고 수십억 원을 들인 광주폴리 역사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빠져거리고 있다. 일부 풀리는 관리가 안돼 애들단지 신세가 된지 오래다. 나중엔 어떤 방향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 즐거웠다. 특히 틈새호텔의 24시를 카메라에 담은 영상은 가나자와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일부 관람객은 “한국에 가면 꼭 한번 틈새호텔에 머물며 광주를 느끼고 싶다”고 했다.

뒤늦게나마 재단이 오는 22일부터 틈새호텔을 재개한다고 15일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부디 이번만큼은 ‘반짝 여행’이 되지 않길 바란다.

(편협부작정 문화선임기자)

빛고을예술봉사단 내일 606번째 사랑 나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이 606번째 사랑 나눔 공연을 이어간다. (사)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은 17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매월동 벵데스다오양원에서 ‘사랑의 향연’ 공연을 한다. 이날 공연은 김상기씨 사회로 진행

되며 가야금병창(황승욱 금의소리연주단), 판소리(김성원), 트로트(조영미), 7080 통기타(김동규), 벨리댄스(하리벨리), 마술(엘비스매직), 희극(김상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꾸며진다. 오는 10월까지 매달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호수공원 등에서 공연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듀 박주환

농심역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